

제80회 KISTEP 수요포럼

주 제 :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뉴 비즈니스

담당자 : 김선재 부연구위원(T. 02-589-5268)

포럼 종합 내용 및 미래 대응방향 정책제언

2018. 2. 28

1. 개요

□ 일 시 : 2018년 2월 24(수) 10:00~12:00

□ 장 소 : KISTEP 12층 국제회의실

□ 발표자 : 김억 파트너 (딜로이트컨설팅)

□ 주 제 : 디지털 경제의 세계적 동향과 뉴 비즈니스

□ 내 용 :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, 개방적 혁신을 통한
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반적 이해와 세계 동향 파악

□ 토론자 : 차재필 정책실장(한국인터넷기업협회), 권현영 교수(고려대학교),
최계용 선임연구원 (정보통신정책연구원)

시간	내용	비고
9:30~10:00	인터뷰	YTN 인터뷰(발표자)
10:00~10:05	개회사	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05~10:10	발표자 소개	(사회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10:10~10:50 (40분)	주제 발표	김억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
10:50~11:30 (40분)	패널소개 및 지정토론	(좌장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권현영 고려대학교 교수 최계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
11:30~12:00 (30분)	자유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

2. 발표 주요 내용

- 디지털경제는 4차 산업혁명, Industrial Internet 등과 유사어로 사람, 비즈니스, 디바이스, 데이터, 프로세스의 일상적 온라인 연결로 발생하는 경제적 활동을 총칭
- 디지털 기술은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, 역사적으로 볼 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는 기술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음.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경제는 이제 새롭게 다가오기 보다는 꼭 필요한 세상이 되었으며 더 이상 글로벌로 나간다는 것이 선택이 아님
- 기술만으로는 큰 이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기술 전체적인 운영 아키텍처에 따라 사람, 프로세스, 기술의 조화가 요구됨. 따라서 새로운 기술 혁신 이후의 가치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. “로봇을 살 수는 있으나 로봇으로 인하여 더 많은 일과 문제가 생길 수 있음”
- 가치사슬의 붕괴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통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산업간, 고객의 기대수준까지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음. 이러한 가치 사슬은 전통적인 직렬형태 구조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, 기업들의 차별화된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
- 기업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어떻게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이며 또한 다양한 혁신 역량을 통하여 Digital 과 Physical 사이에서 데이터를 생성하여 Digital화하고 Physical화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함

- 각 기술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다양한 기술의 융합적 연구가 필요함. 현재 기술은 각 영역을 기반으로 각각 연구/개발되고 있으며, 더욱 높은 편리성을 위해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적 활용이 요구되는 융합 연구가 필요함
- 또한 “Disruptive Technology”은 사회 혁신 활동들과 결합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, 대부분의 신기술 및 사회 혁신 활동들은 그 자체로 파괴적이다. 결합을 통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데이터와 혁신적인 기술 활용으로 변화된 인간 행동까지 결합되어 큰 변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직관적 솔루션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발, 데이터와 파괴적인 신기술이 결합되어 진정한 형태의 스마트 솔루션으로 발전되고 있음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-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한 문장으로 “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혁명” 이라 본다.
 - 투자분야의 명확한 사용목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유도해야 함
 - 과거, 특정기업의 분야 독점에 따른 혁신 저하와는 달리 현시대에는 해당분야 독점을 위한 기업 간 투자 경쟁이 치열함. 그 이유는 예전과 달리 분야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한 발전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
 - 네트워크 컴퓨팅 관련 분야를 비롯한 많은 오픈아이디어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따라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요구
 -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관련 데이터 활용문제 해결방법은 개인정보의 사용여부 및 범위 선정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정책이 요구
- 3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우리나라는 유독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가 집중되어 있으며 독일, 일본과 경쟁구도가 심화되어 있음
 - 상대적으로 2차 산업혁명인 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이룩한 일본 그리고 독일은 3차 산업혁명 당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국가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다시 산업전반을 주도하고 있음
 - 3차 산업혁명이란 사람을 네트워크상에 대입,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화시키는 결과를 얻는 작업이었으며 물리적 제한을 완화하였음. 그에 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적 실체들이 이동화 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의 철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
 - 위와 같은 혁신을 ICT 등의 기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계획은 많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며 공장의 자동화, 스마트시티, 공공부문 혁신 등 거시적 트렌드 로드맵 구성이 시급함

- 디지털경제란 PC 기반 온라인을 통한 인터넷 경제로, 과거 OECD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보도 중임.
 - 최근 4차 산업혁명 또한 디지털 시대 도래를 뜻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디지털경제는 제조업대비 구경제와 비교되고 있으며 신경제와 함께 현 경제를 장악 중
 - 공급자의 힘이 약해지고 소비자의 힘이 강해지기 보다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는 경쟁 환경이 생성됨에 따라 변화된 소비패턴이 발생
 - 소비자의 욕구를 빠르게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분야에 도태되며 또한 고급기술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